

제121호(2016. 3. 14.)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1.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1
2. 주요 품목별 수입 실태	7
3. 시사점 및 향후 과제	21

감 수	최지현 선임연구위원	061-820-2316	jihchoi@krei.re.kr
내 용 문 의	지성태 부연구위원	042-825-9551	dongsimjst@krei.re.kr
자 료 문 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약

- 한미 FTA 이행 4년차('15)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년차 대비 10.2% 감소했고, 동기간 수출액은 6.0% 증가
 - 이행 4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년차 대비 10.2% 감소한 70.1억 달러이고, 對미 수출액은 6.0% 증가한 6.2억 달러
 -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71.6%로 이행 3년차 대비 8.4%p 상승했고,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7.6%로 동기간 1.4%p 상승
- 이행 4년차 미국산 축산물과 과일 수입은 관세율 인하, 국내 수요 증대 등으로 이행 3년차 대비 증가했고, 곡물 수입은 수입선 전환으로 감소
 - 미국산 축산물 중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와 국내산 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했고, 닭고기 수입량은 미국 내 AI 발생에 따른 수입 금지로 감소
 - 미국산 과일 중 오렌지, 레몬, 자몽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와 국내 소비 증가 등으로 증가했고, 체리와 포도 수입량은 주산지 작황부진으로 감소
 - 미국산 곡물(식용) 중 옥수수 수입량은 주요 수출국 대비 높은 수입단가로 수입선이 전환되어 감소했고, 대두 수입량은 FTA TRQ 증량 등으로 증가
- 이행 4년차 관세율 인하폭 확대에 따라 축산물과 과일을 중심으로 수입가격 하락 효과가 커짐.
 -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과 과일(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의 수입가격 하락폭은 각각 약 6.7~16.5%와 12.4~23.3%로 추정
 - 곡물(옥수수, 밀, 대두)은 FTA 발효 전 기준관세율이 낮고 TRQ 물량의 비중이 커 수입가격 하락폭은 약 1.1~1.3%로 추정
- 한미 FTA 이행으로 농업부문 직접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FTA 활용을 통한 국산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 노력도 필요
 - 실효성 있는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접적인 수입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 ※ 2016년부터 FTA 피해보전직불금제 보전비율을 당해 연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차의 90%에서 95%로 상향조정함.
 - 또한, 對미 농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가공식품에 집중된 수출품목을 신선농산물 등으로 다양화해야 하며, 수출 유망품목 발굴, 수출 촉진 인프라 구축, 특혜관세 활용 FTA 수출 지원 등이 필요

1.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¹⁾

1.1.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

□ 한·미 FTA 이행 4년차('15)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²⁾ 대비 17.7% 증가, 3년차 대비 10.2% 감소한 70.1억 달러

○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농축산물³⁾ 수입액은 증감을 반복함.

－ 미국산 수입액(억 달러): 59.6(발효 전 평년) → 66.1(이행 1년) → 59.6(이행 2년) → 78.1(이행 3년) → 70.1(이행 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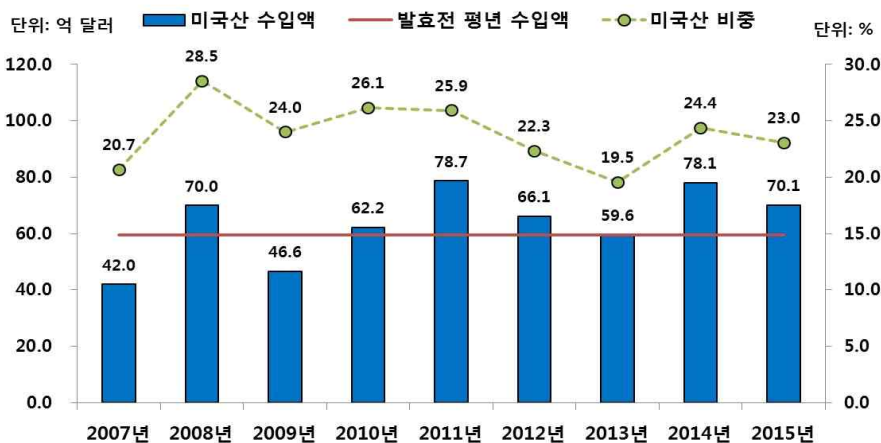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은 FTA 발효 전 평년 기준 26.0%에서 이행 4년차 23.0%로 하락

－ 미국산 수입액 비중(%): 26.0(발효 전 평년) → 22.3(이행 1년) → 19.5(이행 2년) → 24.4(이행 3년) → 23.0(이행 4년)

－ 미국산 전체 수입액 비중 하락은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곡물 수입액이 감소했기 때문

한·미 FTA 이행 4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대비
10.2% 감소

그림 1.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1)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었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12월) 기준으로 통계자료(2,316개 HS코드 기준)를 집계함.

2) 한·미 FTA 발효 전 평년은 2007~201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

3) 본고에서 후술하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농축산물'을 의미함.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감소는
수입선 전환에 따른
곡물 수입 감소가
주된 원인

”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과일·채소와 가공식품 수입액은 FTA 이행 3년차 대비 증가했으나, 곡물과 축산물은 감소

- 과일·채소 수입액은 주스류와 신선과일 등의 수입 증가로 이행 3년차 대비 2.5% 증가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오렌지(9.6%), 레몬(29.4%), 토마토(7.9%), 자몽(42.6%), 크렌베리(17.6%) 등임.
- 가공식품 수입액은 기타 농산부산물, 기타 조제농산품, 당류 등의 수입 증가로 이행 3년차 대비 7.3% 증가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빵(12.4%), 곡류조제품(6.6%), 혼합조제식료품(5.4%), 기타 당(8.1%) 등임.
- 곡물 수입액은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입선 전환 등으로 이행 3년차 대비 29.5% 감소
 -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옥수수(-45.4%), 밀(-15.7%), 대두(-24.3%) 등임
- 축산물(유제품 포함) 수입액은 미국 내 가축질병(AI) 발생 및 국내 생산량 증가 등 국내외 수급여건 변화 등으로 이행 3년차 대비 6.2% 감소
 -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치즈(-16.8%), 닭고기(-83.9%), 탈지분유(-59.5%) 등임.

표 1. 미국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발효 전 대비 (E/A)	1년차 대비 (E/B)	2년차 대비 (E/C)	3년차 대비 (E/D)
전체 합계	5,957	6,614	5,961	7,810	7,011	17.7	6.0	17.6	-10.2
농산물	4,336	4,411	3,637	5,089	4,416	1.9	0.1	21.4	-13.2
– 곡물	2,787	2,375	1,442	2,760	1,947	-30.2	-18.1	35.0	-29.5
– 과일·채소	328	593	616	610	625	90.3	5.3	1.5	2.5
– 가공식품	1,027	1,443	1,580	1,719	1,844	79.5	27.9	16.8	7.3
축산물	823	1,411	1,471	1,878	1,761	114.0	24.8	19.7	-6.2
임산물	795	793	853	843	834	4.9	5.2	-2.2	-1.1

주 1)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2) 발효 전 평년은 2007~201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1.2.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 한·미 FTA 이행 4년차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58.1%, 3년차 대비 6.0% 증가한 6.2억 달러

- 한·미 FTA 발효 이후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행 4년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 － 對미 수출액(억 달러): 3.9(발효 전 평년) → 4.7(이행 1년) → 5.2(이행 2년) → 5.8(이행 3년) → 6.2(이행 4년)
-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FTA 발효를 계기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행 4년차에 10.0%까지 상승
 - － 對미 수출액 비중(%): 9.5(발효 전 평년) → 8.2(이행 1년) → 8.8(이행 2년) → 9.1(이행 3년) → 10.0(이행 4년)
 - － 가공식품이 對미 농축산물 수출 증가를 주도함.

그림 2.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 부류별로 살펴보면, 가공식품 수출은 증가한 반면, 곡물과 과일·채소 수출액은 FTA 이행 3년차와 비슷한 수준이며, 축산물은 감소

- 가공식품 수출액은 과자류, 음료, 면류, 연초류 등의 수출 증가로 이행 3년차 대비 7.0% 증가
 -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기타 베이커리제품(36.3%), 기타 음료(5.1%), 라면(13.5%), 권련(54.2%) 등임.

한·미 FTA 이행 4년차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6.0% 증가

“

이행 4년차 일부
신선과일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발효 전
평년 대비 크게 증가

”

- 과일·채소의 경우 배, 감귤, 매실, 기타 채소 등 수출액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전체 수출액은 이행 3년차 대비 소폭(0.6%) 감소
 -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신선 배(-10.6%), 신선 감귤(-44.4%), 신선 매실(-72.1%), 기타 채소(-14.8%) 등임.
 - 단, 신선 과일류는 발효 전 평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신선 배(7.6%), 신선 포도(11.8%), 신선 감귤(32.0배), 신선 사과(29.8배)
- 축산물(유제품 포함) 수출액은 단백질류, 가축류, 기타 축산물 부산물 등의 수출 감소로 이행 3년차 대비 2.9% 감소
 -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젤라틴(-10.9%), 가축(-47.8%), 동물의 건과근(-59.5%) 등임.

표 2. 농축산물 부류별 對미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 차 (15) (E)	발효 전 대비 (E/A)	1년차 대비 (E/B)	2년차 대비 (E/C)	3년차 대비 (E/D)
전체 합계	392	473	523	584	619	58.1	30.9	18.5	6.0
농산물	353	430	464	520	550	55.9	28.0	18.5	5.8
- 곡물	8	9	10	9	9	10.3	0.6	-7.3	0.3
- 과일·채소	58	67	74	74	74	27.9	9.7	-0.3	-0.6
- 가공식품	288	353	381	437	467	62.5	32.2	22.8	7.0
축산물	22	27	35	36	35	62.2	30.1	0.2	-2.9
임산물	16	16	23	28	34	109.9	108.1	45.6	22.4

주 1)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2) 발효 전 평년은 2007~201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1.3.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FTA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⁴⁾

□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3년 72.6%에서 2014년 63.2%로 하락했다가 2015년 71.6%로 상승

- 2015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축산물 중에서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62.8억 달러이며, 그 중 FTA 특혜관세 활용 수입액은 45.0억 달러
 - 수입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밀, 치즈, 아몬드, 오렌지, 양조박, 감자, 호두, 체리 등이며, 대다수 품목의 활용률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큰 폭으로 하락했던 옥수수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상승이 전체 활용률 회복을 견인함.
 - 2015년 미국산 수입 농축산물 가운데 옥수수 수입액(7.6억 달러)이 쇠고기 다음으로 크며, 옥수수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3년 41.5%에서 2014년 7.1%로 하락했고, 2015년 13.0%⁵⁾로 상승

□ 2015년 對미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47.6%⁶⁾로 2013년(46.1%)과 2014년(46.2%)에 이어 소폭 상승 추세

- 2015년 우리나라의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 중에서 ‘FTA 대상품목’의 수출액은 6.2억 달러이며, 그 중 FTA 특혜관세 활용 수출액은 2.9억 달러
 - 수출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팽이버섯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87.1%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모두 80% 이하임.
- 2014년 김치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92.8%를 기록했으나 2015년 38.5%까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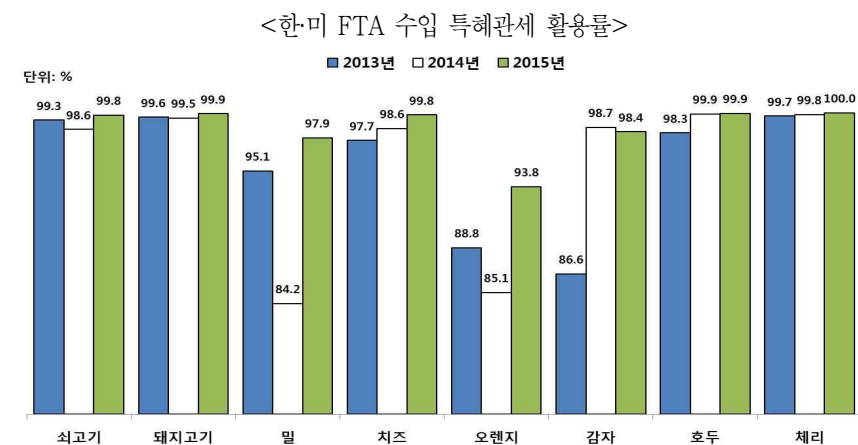
4) FTA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FTA 대상 품목’ 중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한 금액을 의미함.
 5) 옥수수의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할당관세가 부과되는 수입물량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
 6) 미국과의 농축산물 교역에서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보다 높은 이유는, 미국산 농축산물이 FTA로 인한 관세혜택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 가공무역 위주의 국산 수출 농식품의 역외 원료 비중이 높기 때문임. 또한 국내 수출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원산지증명 등 통관과정에서의 다양한 비관세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

이행 4년차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71.6%로 전년 대비
8.4%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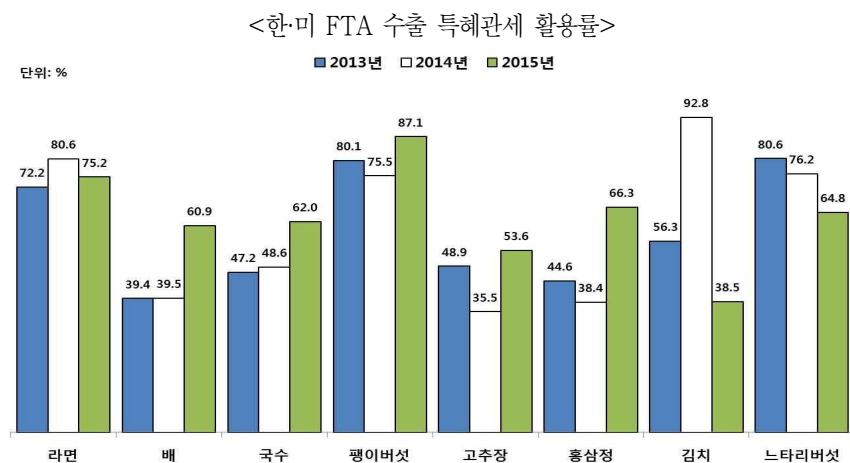
“
이행 4년차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7.6%로 전년 대비
1.4%p 상승

- FTA 활용에 대한 양 당사국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김치 수출업체의 원산지 사후검증(직접검증)에 따른 부담과 미국 현지 수입업체의 손해배상 청구 및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원산지증명 활용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됨.⁷⁾

그림 3. 2015년 주요 농축산물 한·미 FTA 특혜관세 활용률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7) 한·미 FTA에서 원산지증명서(C/O)는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모두 작성할 수 있는데, 2014년도의 경우 미국 현지 수입업체들이 원산지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례가 많아 FTA 활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2. 주요 품목별 수입 실태

2.1. 미국산 축산물

□ 한·미 FTA 이행 4년차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14.0% 증가, 이행 3년차 대비 6.2% 감소

- 닭고기를 제외한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분유 수입액은 관세율 인하, 국내 생산량 감소 및 수요 증가 등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증가
 - 미국산 닭고기 수입액은 2014년 12월 미국 내 AI 발생에 따른 수입 금지조치로 발효 전 평년과 이행 3년차 대비 모두 감소
 -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22.8% 증가했으나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량은 10.1% 감소
 - 치즈와 분유 수입은 국내 수요 증가로 발효 전 평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수입선 전환효과 등으로 이행 3년차 대비 모두 감소

표 3. 미국산 주요 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율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발효전 대비 (E/A)	3년차 대비 (E/D)
쇠고기	수입액	653	522	578	764	802	22.8	4.9
	수입량	128	106	101	112	115	-10.1	3.4
돼지고기	수입액	225	391	313	403	455	102.4	12.9
	수입량	98	131	112	121	151	53.6	24.1
닭고기	수입액	54	91	71	96	16	-71.1	-83.9
	수입량	39	54	45	65	11	-72.7	-83.4
치즈	수입액	56	141	188	301	251	346.4	-16.8
	수입량	13	32	43	64	55	324.9	-14.1
분유 (탈자+전지)	수입액	0.9	6.9	24.1	32.7	12.8	1339.7	-61.0
	수입량	0.3	1.9	6.3	8.0	5.7	1874.1	-28.7
전체 축산물	수입액	823	1,411	1,471	1,878	1,761	114.0	-6.2
	수입량	1,071	1,286	1,209	1,357	1,464	36.8	7.9

주 1) 발효 전 평년은 2007~2011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치임.

2) 쇠고기의 발효 전 대비 증감률은 미국은 BSE 발병으로 인한 수입금지 조치를 고려하여 FTA 발효 직전 연도인 2011년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이행 4년차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대비 6.2% 감소

“
쇠고기 수입가격은
발효 전 평년 대비
26.5% 상승 추정

”

□ 이행 4년차 관세율 하락으로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가격은 평균 10.5% 하락

- 2015년 미국산 축산물(육류 기준) 수입가격에 대해 FTA 미발효 시 (2011년 관세율 유지)를 가정하면, 돼지고기 16.5%, 쇠고기 7.6%, 닭고기 6.7%의 수입가격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 특히, 냉동돼지고기(목살, 전·후지)의 경우, 2016년 관세율이 철폐될 예정인 가운데 16.8%의 수입가격 하락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

표 4. 미국산 주요 축산물 관세율 하락효과

단위: 달러/kg, %

2015년 수입가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FTA 미발효(A)	11,248	4,149	1,874
FTA 발효(B)	10,389	3,465	1,749
관세율 하락효과(B/A)	-7.6	-16.5	-6.7
축산물(육류) 평균	-10.5		

- 주 1) 각 수입 품목은 미국산 수입 상위 3개 품목으로 전체 품목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임.
 2) 쇠고기는 냉동·냉장 쇠고기와 냉동갈비, 돼지고기는 냉동 돼지고기와 냉장·냉동 삼겹살, 닭고기는 냉동 닭다리·닭가슴·닭날개를 대상으로 분석함.
 3) 수입가격은 부위별 수입액(관세율, 환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 값임.

□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0.1% 감소, 수입가격
은 26.5% 상승

-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12년 미국 내 광우병 발생에 따른 수입선 전환 등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0.1% 감소한 11만 5천 톤
 - － 반면,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은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호주산 수요 증가로 2011년 대비 11.2% 증가
-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등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26.6% 상승 추정
 - － 동기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단가는 33.7% 상승했고, 관세율 인하가 수입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효과를 나타냄.
 - － 한편, 국제곡물가격 하락과 미국 내 공급 증가 등으로 2016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은 6.0% 증가 전망(USDA, '15.10.)

※ 미국의 쇠고기 생산량(만 톤):

1,198('11) → 1,184('12) → 1,175('13) → 1,108('14) → 1,086('15) → 1,139('16 전망치)

※ FTA 미발효 가정 시 2015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은 kg당 11,248원으로 추정

표 5.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율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발효 전 대비 (E/A)	3년차 대비 (E/D)
미국	수입가격(원/kg)	8,215	7,934	8,536	9,669	10,389	26.5	7.4
	수입단가(달러/kg)	5.31	5.13	5.79	6.96	7.10	33.7	2.0
	환율(원/달러)	1,108	1,127	1,095	1,053	1,131	2.1	7.4
	관세율(%)	40	37.3	34.6	32	29.3	-26.8	-8.4
	수입량(천 톤)	128	106	101	112	115	-10.1	3.4
호주	수입가격(원/kg)	8,518	8,428	8,217	8,300	9,181	7.8	10.6
	수입단가(달러/kg)	5.49	5.34	5.36	5.74	6.03	9.8	5.1
	수입량(천 톤)	170	156	166	173	189	11.2	9.5
뉴질랜드	수입가격(원/kg)	6,583	6,172	6,232	7,093	6,844	4.0	-3.5
	수입단가(달러/kg)	4.24	3.91	4.07	4.81	4.46	5.2	-7.3
	수입량(천 톤)	39	33	30	27	23	-41.3	-13.4
국내 수급	생산량(천 톤)	216	234	260	261	256	18.5	-1.9
	1인당 소비량(kg)	10.2	9.7	10.3	10.8	10.9	6.9	0.9

주 1)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냉장쇠고기(0201300000), 냉동갈비(0202201000), 냉동쇠고기(0202300000)이며, 3개 세번 수입량 비중은 2015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의 89%를 차지
 2) 쇠고기의 발효 전 대비 증감률은 한·미 FTA 발효 직전 연도인 2011년과 비교
 3) 수입가격은 부위별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
 4) 수입량은 쇠고기에 포함된 전체 HS코드를 기준으로 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2016).

□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53.6% 증가, 수입가격은 12.2% 상승

- 2015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과 국내 수요 증가로 발효 전 평년 대비 53.6% 증가한 15만 1천 톤
 - － 발효 전 대비 국내 돼지고기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산 생산량 증가와 수입단가 하락에 따른 수입량 증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남.

※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천 톤):

712(발효 전 평년) → 854(이행 2년) → 830(이행 3년) → 842(이행 4년)

※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kg)⁸⁾:

19.1(발효 전 평년) → 20.9(이행 2년) → 21.8(이행 3년) → 23.7(이행 4년)

돼지고기 수입가격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2.2% 상승 추정

“
닭고기 수입가격은
발효 전 평년 대비
4.2% 하락 추정
”

- 수입단가는 발효 전 평년 대비 33.0% 상승했으나, 2014년 냉동돼지고기(삼겹)의 관세율 철폐 등으로 수입가격 상승폭은 12.2%에 그친 것으로 추정

※ FTA 미발효 가정 시 2015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가격은 kg당 4,149원으로 추정

표 6.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율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발효 전 대비 (E/A)	3년차 대비 (E/D)
미국	수입가격(원/kg)	3,088	3,784	3,257	3,610	3,465	12.2	-4.0
	수입단가(달러/kg)	2.21	2.89	2.65	3.16	2.94	33.0	-7.0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0.8	7.4
	관세율(%)	25	16	12	8	4	-84.0	-50.0
	수입량(천 톤)	98	131	112	121	151	53.6	24.1
EU	수입가격(원/kg)	3,944	4,274	3,979	3,884	3,553	-9.9	-8.5
	수입단가(달러/kg)	2.81	3.18	3.11	3.26	2.88	2.5	-11.7
	수입량(천 톤)	134	162	129	199	253	89.7	27.4
국내 수급	생산량(천 톤)	712	750	854	830	842	18.2	1.4
	1인당 소비량(kg)	19.1	19.2	20.9	21.8	23.7	24.1	8.7

주 1)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냉동돼지고기(0203299000), 냉동삼겹살(0203291000), 냉장삼겹살(0203191000)이며, 3개 세번 수입량 비중은 2015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의 89%를 차지
 2) 수입가격은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
 3) 협정관세율은 냉동돼지고기(목살, 전후지)를 기준으로 함.
 4) 수입량은 돼지고기에 포함된 전체 HS 코드를 기준으로 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2016).

□ 미국산 닭고기 수입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72.7% 감소, 수입가격은 4.2% 하락

- 미국산 닭고기 수입량은 미국 내 AI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발효 전 평년 대비 72.7% 감소한 1만 1천 톤
 - 2014년 12월 미국의 AI 발병으로 닭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됐으며, 2015년 11월 금지조치가 해제됐으나, 2016년 1월 인디애나에서 AI가 재 발생하여 금지조치를 취함.
 - 미국산 닭고기 수입 금지조치로 수입선이 브라질로 전환됨.

8) 2015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 미국산 닭고기 수입단가는 발효 전 평년 대비 1.5% 상승했으나, 관세율 인하 등으로 수입가격은 4.2% 하락 추정

※ FTA 미발효 가정 시 2015년 미국산 닭고기 수입가격은 kg당 1,874 원으로 추정

표 7. 미국산 닭고기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율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발효 전 대비 (E/A)	3년차 대비 (E/D)
미국	수입가격(원/kg)	1,826	2,202	1,983	1,771	1,749	-4.2
	수입단가(달러/kg)	1.36	1.66	1.56	1.48	1.38	1.5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0.8
	관세율(%)	20	18	16	14	12	-40
	수입량(천 톤)	39	54	45	65	11	-72.7
보통	수입가격(원/kg)	3,232	3,449	3,255	3,335	3,143	-2.8
	수입단가(달러/kg)	2.40	2.55	2.48	2.64	2.31	-3.7
	수입량(천 톤)	26	57	59	52	80	209.6
국내 수급	생산량(천 톤)	408	464	473	528	573	40.5
	1인당 소비량(kg)	9.8	11.6	11.5	12.8	13	32.7

주 1)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냉동닭다리(0207141010), 냉동닭가슴(0207141020), 냉동닭날개(0207141030)이며, 3개 세번 수입량 비중은 2015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의 99%를 차지
 2) 수입가격은 냉동닭다리, 냉동닭가슴, 냉동닭날개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
 3) 협정관세율은 냉동닭다리를 기준으로 함.
 4) 수입량은 닭고기에 포함된 전체 HS 코드를 기준으로 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2016).

□ FTA 이행으로 미국산 유제품에 대한 TRQ 확대 및 관세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EU의 생산 쿼터제 폐지, 뉴질랜드산 수입 증가 등으로 미국산 치즈 및 분유 수입은 감소

- 2015년 미국산 유제품 수입량은 총 5만 4,821톤으로 FTA TRQ 물량인 7,649톤 초과

– TRQ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체다치즈가 10년, 기타치즈는 15년에 걸쳐 철폐되며, TRQ 물량(복리 3% 증량)은 2015년 이후 무한대로 증량될 예정

※ 쿼터 외 물량에 대한 관세율(%)⁹⁾:

33.6(이행 1년) → 31.2(이행 2년) → 28.8(이행 3년) → 26.4(이행 4년)

9) 치즈(기준관세율: 36%)의 HS 코드인 0406의 900000, 101000, 200000, 300000에 대해서는 15년(양허유형 H), 102000, 400000에 대해서는 10년(양허유형 G)안에 초과물량에 대한 관세율이 철폐됨.

미국산 유제품(치즈, 분유 등)은 수입선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

“
이행 4년차 과일
수입액은 전년 대비
4.8% 증가
”

○ 2015년 미국산 탈·전지분유 수입량은 5,699톤으로 FTA TRQ 물량인 5,464톤을 초과한 반면, 조제분유(HS: 19류)는 TRQ 물량(765톤)보다 적은 82톤이 수입됨.

- 탈·전지분유의 FTA TRQ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176%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TRQ 물량은 15년간 복리 3%씩 증량될 예정
- 조제분유의 TRQ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10년에 걸쳐 철폐될 예정이며, 이행 10년 이후 TRQ 물량은 무한대로 증량될 예정

표 8. 미국산 치즈·분유 TRQ 및 수입량 현황

단위: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율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발효 전 대비 (E/A)	3년차 대비 (E/D)
치즈	TRQ	-	7,000	7,210	7,426	7,649	-	3.0
	수입량	12,901	31,877	42,530	63,848	54,821	324.9	-14.1
분유 (탈지+전지)	TRQ	-	5,000	5,150	5,305	5,464	-	3.0
	수입량	289	1,941	6,265	7,989	5,699	1874.1	-28.7
조제 분유	TRQ	-	700	721	743	765	-	3.0
	수입량	150	266	141	136	82	-45.2	-39.8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2.2. 미국산 과일류

□ 한미 FTA 이행 4년차 미국산 과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04.2% 증가, 이행 3년차 대비 4.8% 증가

- 미국산 과일 수입액은 관세율 인하, FTA TRQ 증량 및 국내 수요 증가 등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2배 정도 증가
 - 신선 오렌지, 체리, 포도, 레몬과 자몽의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품목에 따라 0.5~3.4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함.
 - 이행 3년차(14)와 비교하면, 오렌지, 레몬, 자몽은 주산지인 캘리포니아의 작황호조와 국내 수요 증가로 수입이 증가한 반면, 체리와 포도는 주산지인 워싱턴주의 작황부진, 석류는 국내 소비 감소로 수입이 감소

표 9. 미국산 과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발효 전 대비 (E/A)	3년차 대비 (E/D)
주요 신선 과일	오렌지	수입액	110	211	186	156	163	48.5	4.3
		수입량	92,570	166,931	145,741	91,209	102,884	11.1	12.8
	체리	수입액	30	81	88	123	120	300.5	-2.6
		수입량	3,748	9,325	8,936	13,080	12,076	222.2	-7.7
	석류	수입액	10	19	28	24	19	82.4	-21.2
		수입량	4,892	8,702	13,596	10,760	8,638	76.6	-19.7
	포도	수입액	9	16	20	20	18	97.8	-12.2
		수입량	3,799	5,951	7,579	7,027	6,034	58.8	-14.1
	레몬	수입액	8	15	24	25	33	336.7	30.3
		수입량	4,584	9,250	12,619	10,706	12,962	182.7	21.1
	자몽	수입액	7	11	12	14	19	182.8	35.7
		수입량	5,849	8,681	9,487	10,911	14,116	141.3	29.4
전체 과일	수입액	216	411	432	421	442	104.2	4.8	
	수입량	134,542	227,088	222,165	162,324	179,929	33.7	10.8	

주 1) 석류는 기타과실 중 HS 0810.90.9000기준임. 기타 미국산 신선과일로는 크랜베리, 애버카도우, 메론 등이 있으나 수입규모는 미미함.

2) 전체 과일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과일의 HS 세번을 포함한 합계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 이행 4년차 관세율 하락으로 주요 신선과일의 수입가격은 평균 21.3% 하락

- 2015년 미국산 주요 신선과일 수입가격에 대해 FTA 미발효 시 (2011년 관세율 유지)를 가정하면, 오렌지 23.3%, 체리 19.4%, 포도 26.9%, 석류 12.4%, 레몬 23.1%, 자몽 18.4%의 수입가격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표 10. 미국산 주요 신선과일 관세율 하락효과

단위: 원/kg

2015년 수입가격	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
FTA 미발효(A)	2,686	13,925	4,842	3,519	3,765	1,970
FTA 발효(B)	2,059	11,230	3,540	3,082	2,896	1,607
관세하락효과(B/A)	-23.3	-19.4	-26.9	-12.4	-23.1	-18.4
신선과일 평균(%)	-21.3					

주: 각 수입 품목은 신선과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오렌지·레몬·자몽
수입량은 전년 대비
증가,
체리·석류·포도는 감소

오렌지
수입가격(3~8월)은
발효 전 평년 대비
6.0% 상승 추정

□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1.1% 증가, 계절관세 적용 시기(3~8월)의 수입가격은 6.0% 상승

-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와 TRQ 증량(연 3%) 및 국내 수요 증가로 발효 전 평년 대비 26.8% 증가한 9만 3천 톤
 - 2015년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은 주산지인 캘리포니아의 작황부진(USDA, '16.1.)과 항만노조 파업에 따른 수입시기 지연에도 불구하고 이행 3년차 대비 12.8% 증가

※ TRQ 물량(톤): 2,500(이행 1년차)→2,732(이행 4년차)

※ 미국(캘리포니아) 생산량: 1,976천 톤('14)→1,960천 톤('15)(USDA NASS, '16.1.)

- 미국산 오렌지 수입가격은 계절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율 하락(50%→15)효과보다 수입단가 상승(37.1%) 등의 영향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6.0% 상승 추정

※ FTA 미발효 가정 시 2015년 미국산 오렌지(3~8월) 수입가격은 kg 당 2,686원으로 추정

표 11. 미국산 오렌지 수입가격(3~8월)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율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발효 전 대비 (E/A)	3년차 대비 (E/D)
수입가격(원/kg)	1,944	1,860	1,741	2,166	2,059	6.0	-4.9
수입단가(달러/kg)	1.2	1.3	1.3	1.7	1.6	37.1	-7.7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0.8	7.4
관세율(%)	50	30	25	20	15	-70.0	-25.0
수입량 (천 톤)	미국	92.6	166.9	145.7	91.2	102.9	11.1
	남아공	2.2	2.1	3.7	4.0	4.6	109.7
	칠레	2.8	3.1	2.4	1.8	1.3	-54.8
만감류	생산량 (천 톤)	690	692	683	722	680	-1.4
	가격 (원/kg)	4,545	5,351	4,828	4,266	3,893	-14.3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은 신선오렌지(080510000)를 기준으로 함.

2) 수입가격은 신선오렌지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

3) 3~8월까지 수입되는 미국산 오렌지는 계절관세가 적용(관세는 6년에 걸쳐 철폐 예정).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통계청,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 미국산 체리 수입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약 2.2배 증가, 수입가격은 4.5% 하락

- 미국산 체리 수입량은 FTA 발효 즉시 기준관세율(24%)이 철폐되고 국내 수요 증가로 발효 전 평년 대비 2.2배 증가한 1만 2천 톤

- 2015년 미국산 체리 수입량은 주산지인 워싱턴주의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이행 3년차 대비 7.7% 감소

※ 미국(워싱턴) 생산량: 23.7만 톤('14)→21만 톤('15)(UDSDA NASS, '16.1.)

- 미국산 체리 수입가격은 미국 체리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24.3%)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즉시 관세율이 철폐되어 발효 전 평년 대비 4.5% 하락 추정

※ FTA 미발효 가정 시 2015년 미국산 체리 수입가격은 kg당 13,925원으로 추정

표 12. 미국산 체리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증감율	
		1년차 (B)	2년차 (C)	3년차 (D)	4년차 (E)	발효 전 대비 (E/A)	3년차 대비 (E/D)
수입가격(원/kg)	11,760	9,780	10,724	9,908	11,230	-4.5	13.3
수입단가(달러/kg)	8.4	8.7	9.8	9.4	9.9	17.5	5.5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0.8	7.4
관세율(%)	24	0	0	0	0	-100.0	-
수입량(톤)	미국	3,748	9,325	8,936	13,080	12,076	222.2
	뉴질랜드	158	121	145	109	174	9.5
	호주	2	8	9	24	297	-
국산 체리 가격 (원/kg)	15,531	10,910	10,313	8,279	11,393	-26.6	37.6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은 신선체리(0809290000)를 기준으로 함.

2) 수입가격은 신선체리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FTA이행지원센터(2016)

□ 미국산 포도 수입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58.8% 증가,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시기(10월 16일~익년 4월)의 수입가격은 9.3% 하락

- 미국산 포도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와 그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58.5% 증가한 6천 톤

※ 미국산 포도 계절관세율(%): 45(기준관세율)→6(이행 4년차)

- 미국산 포도 수입가격은 수입단가와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절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율 인하(2016년 철폐) 등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9.3% 하락 추정

※ FTA 미발효 가정 시 2015년 미국산 포도 수입가격(계절관세율 적용)은 kg당 4,842원으로 추정

“ 체리와 포도
수입가격은 발효 전
평년 대비 각각 4.5%와
9.3% 하락 추정 ”

표 13. 미국산 포도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관세 유형	발효 후 이행				증감율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발효 전 대비 (E/A)	3년차 대비 (E/D)
수입가격(원/kg)	3,902	일본산세	3,978	3,906	4,158	4,580	17.4	10.2
		계산관세	3,780	3,467	3,449	3,540	-9.3	2.6
수입단가(달러/kg)	2.4	일본산세	2.5	2.6	2.9	3.0	26.1	4.5
		계산관세	2.7	2.7	2.9	3.0	23.6	0.9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0.8	7.4
관세율(%)	45.0	일본산세	42.3	39.7	37.0	34.4	-23.6	-7.0
		계산관세	24.0	18.0	12.0	6.0	-86.7	-50.0
수입량 (천 톤)	미국	3.8	6.0	7.6	7.0	6.0	58.8	-14.1
	칠레	28.8	46.6	47.4	47.0	50.6	75.7	7.7
	페루	0.0	1.6	3.8	5.2	9.0	-	72.7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은 신선포도(080610000)를 기준으로 함.
 2) 수입가격은 신선포도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
 3) 미국산 포는 10월 16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 계절관세가 적용되며, 페루는 2011년부터 수입실적이 있음.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FTA이행지원센터(2016)

이행 4년차 곡물
수입액은 전년 대비
31.8% 감소

- 미국산 레몬, 자몽과 석류의 수입량은 국내 수요 증가로 발효 전 평년 대비 모두 증가
 - 미국산 레몬 수입량은 주산지인 캘리포니아의 작황호조로 발효 전 평년과 이행 3년차 대비 각각 1.8배와 21.1% 증가
 - 미국산 자몽 수입량은 FTA 발효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품질이 좋고 수입단가가 낮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스라엘의 수입량 증가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2012년 83%에서 2015년 56%로 하락
 - 미국산 석류 수입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76.6% 증가했지만, 최근 작황부진에 따른 품질 저하와 국내 선호도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19.7% 감소

2.3. 미국산 곡물류(식용)

□ 한미 FTA 이행 4년차 미국산 곡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40.7% 감소, 이행 3년차 대비 31.8% 감소

- 미국산 곡물 수입액은 가격경쟁력 하락에 따른 수입선 전환 등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
 - 미국산 옥수수과 밀 수입액은 수입단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곡물 수출국 대비 수입단가가 높아 수입선이 전환¹⁰⁾되어 발효 전

10) 식용 옥수수의 주요 수입선은 미국에서 브라질,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으로 전환됨.

평년 대비 각각 59.5%와 8.6% 감소

- 미국산 대두 수입액은 미국 작황호조와 FTA TRQ 증량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07.7% 증가
- 이행 3년차('14)와 비교하면, 밀과 대두의 수입량은 증가한 반면, 수입단가 하락으로 수입액은 모두 감소

표 14. 미국산 주요 곡물(식용)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율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발효 전 대비 (E/A)	3년차 대비 (E/D)
주요 곡물	옥수수	수입액	315	49	38	282	110	-65.1	-61.0
		수입량	1,141	115	87	1,021	462	-59.5	-54.8
	밀	수입액	389	437	428	381	355	-8.6	-6.6
		수입량	1,197	1,210	1,135	1,106	1,134	-5.3	2.5
	대두	수입액	77	129	160	169	159	107.7	-5.6
		수입량	134	191	212	233	252	88.4	8.3
전체 곡물		수입액	2,149	1,750	652	1,867	1,273	-40.7	-31.8
		수입량	7,790	5,309	1,547	6,694	4,867	-37.5	-27.3

주: 전체곡물은 미국산 곡물의 전체 수입량이며, 각 품목별 수입량은 식용(종자, 사료 등을 제외) 기준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 이행 4년차 미국산 곡물 대부분이 TRQ 물량으로 수입되고 FTA 발효 전 기준관세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세율 하락효과가 작음.

- 2015년 미국산 주요 곡물 수입가격에 대해 FTA 미발효 시(2011년 관세율 유지)를 가정하면, 옥수수 1.1%, 밀 1.8%, 대두 1.3%의 수입가격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표 15. 미국산 주요 곡물(식용) 관세율 하락효과

단위: 원/kg

2015년 수입가격	옥수수	밀	대두
FTA 미발효(A)	277	361	750
FTA 발효(B)	274	355	746
관세하락효과(B/A)	-1.1	-1.8	-1.3
주요 곡물 평균(%)	-1.3		

주: 각 수입 품목은 식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수입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산 옥수수
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

”

옥수수 수입가격은
발효 전 평년 대비
65.7% 하락 추정

□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59.5% 감소,
수입가격은 65.7% 하락

-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주요 수출국 대비 높은 수입단가와 달러 강세 등으로 수입선이 브라질,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으로 전환되어 발효 전 평년 대비 59.5% 감소한 46만 2천 톤
 - 2015년 미국산 옥수수의 수입단가는 0.24\$/kg으로 수출 경쟁국인 브라질(0.21\$/kg), 러시아(0.21\$/kg)와 우크라이나(0.21\$/kg)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미국산 옥수수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하락(-1.3%) 및 관세율 인하 등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65.7% 하락 추정
- ※ FTA 미발효 가정 시 2015년 미국산 옥수수 수입가격은 kg당 277 원으로 추정

표 16. 미국산 옥수수(식용)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⁴⁾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발효 전 대비 (E/A)	3년차 대비 (E/D)	
미국	수입가격(원/kg)	799	480	480	663	274	-65.7	-58.6	
	수입단가(달러/kg)	0.28	0.42	0.44	0.28	0.24	-1.3	-35.1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0.8	7.4	
	팜콘용	물량(톤)	-	5,112	6,390	7,668	8,946	-	16.7
	ASG	관세(%)	630	601	572	544	515	-18.3	-5.3
	기타	물량(톤)	-	18,547	23,434	28,321	38,307	-	16.7
	옥수수	관세(%)	328	313	298	283	268	-18.3	-5.3
	ASG	수입량(천 톤)	1,141	115	87	1,021	462	-59.5	-54.8
브라질	수입량(천 톤)	139	419	694	236	390	180.2	65.2	
	수입단가(달러/kg)	0.30	0.30	0.32	0.26	0.21	-30.0	-19.2	
러시아	수입량(천 톤)	0	0	0	225	372	-	65.5	
	수입단가(달러/kg)	1.40	0.00	0.00	0.26	0.21	-85.0	-19.2	
우크라이나	수입량(천 톤)	0	457	0	60	275	-	354.5	
	수입단가(달러/kg)	0.00	0.31	7.50	0.24	0.21	-	-12.5	

주 1) 수입가격은 분석 대상은 기타옥수수(1005909000), 팜콘용(1005902000), 옥수수가루(1102200000) 등 5개 세 번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수입가격은 기타옥수수, 팜콘용, 옥수수가루 등 5개 세번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
 3) ASG 물량 미만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수입옥수수에 대한 WTO TRQ 물량과 FTA TRQ 물량이 모두 미국산에 배정되었다는 가정 하에 수입가격 산출
 4) 수입량은 옥수수에 포함된 전체 HS 코드를 기준으로 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 미국산 밀 수입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5.3% 감소, 수입가격은 8.1% 하락

- 미국산 밀 수입량은 수입단가와 관세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 호주산 밀에 대한 국내 수요 증가로 발효 전 평년 대비 5.3% 감소한 113만 4천 톤
 - 2015년 호주산 밀 수입량은 107만 톤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27.8% 증가한 반면, 미국산 수입량은 작황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5.3% 감소

- 미국산 밀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하락(−5.4%) 및 관세율 인하 등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8.1% 하락 추정
 - 미국산 식용 밀 대부분의 기준관세율(제분용 1.8%)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FTA 발효 즉시 철폐되어 관세 인하효과가 크지 않음.
- ※ FTA 미발효 가정 시 2015년 미국산 밀 수입가격은 kg당 361원으로 추정

“
밀 수입가격은 발효 전
평년 대비 8.1% 하락
추정

표 17. 미국산 밀(식용)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¹⁾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발효 전 대비 (E/A)	3년차 대비 (E/D)
미 국	수입가격(원/kg)	386	407	413	363	355	−8.1	−2.2
	수입단가(달러/kg)	0.33	0.36	0.38	0.34	0.31	−5.4	−8.9
	환율(원/달러)	1,122	1,095	1,053	1,122	1,131	0.8	7.4
	관세율(%)	제분용	1.8	0	0	0	−100.0	−
		기타	1.8	0	0	0	−100.0	−
	수입량(천 톤)	1,197	1,210	1,135	1,106	1,134	−5.3	2.5
호 주	수입가격(원/kg)	387	383	434	368	388	0.1	5.5
	수입단가(달러/kg)	0.33	0.33	0.39	0.34	0.29	−11.4	−15.2
	수입량(천 톤)	840	1,028	954	1,023	1,074	27.8	5.0
캐 나 다	수입가격(원/kg)	486	484	430	396	388	−20.2	−1.9
	수입단가(달러/kg)	0.41	0.42	0.39	0.37	0.34	−16.8	−8.6
	수입량(천 톤)	167	179	170	167	202	20.9	20.7

주 1)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메슬린 외 기타(1001992090), 밀가루(1101001000) 등 14개 세 번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기타 옥수수에 대해서는 ASG를 적용한 수입가격임.

2) 수입가격은 메슬린 외 기타, 밀가루 14개 세 번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

3) 수입량은 밀에 포함된 전체 HS 코드를 기준으로 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
대두 수입가격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5% 상승 추정
”

□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88.4% 증가, 수입가격은 1.5% 상승

- 미국산 대두 TRQ¹¹⁾ 물량은 2만 5,750톤으로 증량되었고, 그 외 수입량은 WTO 시장접근물량(264,787톤)으로 5%의 관세율이 부과되어 발효 전 평년 대비 88.4% 증가한 25만 2천 톤

※ 한·미 FTA TRQ 물량(톤): 1만('12)→2만('13)→2만5천('14)→2만5,750톤('15)

– 미국산 대두의 수입가격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5% 상승한 746원

- 미국산 대두 수입가격은 수입단가가 상승(6.2%)에도 불구하고, 무관세 적용 및 TRQ 물량 도입 등에 따른 상쇄효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소폭(1.5%) 상승한 것으로 추정

※ FTA 미발효 가정 시 2015년 미국산 대두 수입가격은 kg당 750원으로 추정

표 18. 미국산 대두(식용)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⁴⁾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발효 전 대비 (E/A)	3년차 대비 (E/D)
미 국	수입가격(원/kg)	735	797	863	797	746	1.5	-6.4
	수입단가(달러/kg)	0.60	0.68	0.75	0.73	0.63	6.2	-12.9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0.8	7.4
	TRQ	HS1201(톤)	—	10,000	20,000	25,750	—	3.0
		TRQ 관세율(%)	5.0	0.0	0.0	0.0	-100.0	—
	수입량(천 톤)	134	191	212	233	252	88.4	8.3
중 국	수입가격(원/kg)	858	1,144	1,265	1,174	1,392	62.2	18.6
	수입단가(달러/kg)	0.72	0.97	1.10	1.06	1.18	64.4	10.7
	수입량(천 톤)	158	121	55	75	27	-83.1	-64.2

주 1)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콩나물용(1201903000), 기타(1201909000), 대두로 만든 것(1208100000)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수입가격은 콩나물용, 기타, 대두로만든 것(분쇄)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

3) 수입량은 대두에 포함된 전체 HS 코드를 기준으로 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11) TRQ는 식용콩을 대상으로 한 시장접근수입물량을 의미하며, 대부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민간실수요업체가 FTA이행물량을 배정받아 수입하는 방식임.

3.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한·미 FTA 이행 4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가축질병 등에 따른 국내외 수급여건 변화, 수출국의 작황부진에 따른 수입선 전환 등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임.

- 미국산 축산물은 관세율이 장기간 균등 철폐되므로 EU·영연방 3개국 등 FTA 기 체결 국가(경제권)와의 경합이 불가피한 상황임. 미국산 축산물 수입량은 국내외 가축질병(구제역, AI 등) 발생 여부와 그에 따른 수입선 전환 영향을 받음.
- 국내 소비자의 수입과일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FTA 관세인하에 따라 오렌지, 체리, 자몽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미국산 과일의 수입단가가 하락함. 그러나 미국산 과일 수입량은 미국 내 작황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보임.
- 미국산 곡물 수입량은 기후변화에 따른 미국의 작황부진에 크게 좌우되며, 다수의 FTA 이행으로 수입선 전환의 가능성이 커짐.
- 이행 4년차 관세율 하락에 따른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과 과일(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의 수입가격 하락폭은 각각 약 6.7~16.5%와 12.4~23.3%로 추정되며, 향후 관세율 하락폭이 확대되면 미국산 가격경쟁력은 더욱 제고될 전망
 - 반면, FTA 발효 전 기준관세율이 낮고 TRQ 물량 비중이 큰 곡물(옥수수, 밀, 대두)의 수입가격 하락폭은 약 1.1~1.3%로 관세율 인하효과는 크지 않음.

“

이행 4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국내외 수급여건 등에
크게 좌우됨

”

“

실효성 있는
국내보완대책 중심의
선택과 집중 및 국산
농축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

”

□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하락 및 철폐로 인한 국내 농축산업 생산 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생산기반 정비, 구조조정, 고품질화 등 실효성 있는 FTA 국내보완대책 중심의 선택과 집중 필요

-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국내 수급 불안정, 기상이변 등의 경영 위험에 대한 농업인의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직접적인 수입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할 필요

※ 2016년부터 FTA 피해보전직불금제 보전비율을 당해 연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차의 90%에서 95%로 상향조정함.

□ 아울러 미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수립, 인프라 구축, 특혜관세 활용 제고 등에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對미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FTA 발효 이후 對미 농축산물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의 상승추세는 고무적임.

- 그러나 여전히 주요 수출품목이 가공식품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출품목을 신선농산물 등으로 다양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출 유망품목 발굴, 수출시장 정보 및 FTA 활용을 위한 컨설팅서비스 제공, 수출업체 마케팅 역량강화, 수출 촉진 인프라 구축 등의 포괄적 지원이 필요



2016년

제121호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2015년

제120호 2016년 10대 농정 이슈(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등)

제11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118호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과급 영향(우병준, 김형진)

제117호 2015년 김장철 채소류 수급 전망과 절임배추 소비특성 분석
(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 과제(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제115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정학균, 김창길)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제113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제111호 김치의 한·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최병옥, 노호영)

제110호 주요 농림축산물의 2015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제109호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제108호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107호 최근 소 값 동향과 전망(이형우, 우병준)

제106호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제105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정은미)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박기환)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현)

제102호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2014년

제100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제98호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제97호 발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박준기, 김미복)

KREI 농정포커스 제121호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변화와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6. 3. 14.
발 행 2016. 3. 14.
발 행 인 최세균
편집위원 김홍상,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우병준,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빗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02-2269-5523~4 dec5523@hanmail.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